



SK에너지, 3분기 수출호조 실적으로 화답

SK에너지가 3분기 연속으로 수출실적이 내수판매를 앞지르는 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매출은 전분기 대비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등 견고한 실적을 계속하고 있다.

SK에너지는 지난 10월30일 오후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업설명회를 통해 올해 3분기 매출이 6조 6,579억원으로 직전 분기 보다 (분할전 회사 기준) 3%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은 5% 증가한 4,18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의 수출 증가와 미국, 중국, 유럽 등 수출 지역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수출위주의 영업전략이 주효하여 석유, 화학, 운할유, 석유개발 등 해외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이 3조 6,25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54.5%를 기록, 사상 최초로 2분기 연속 수출실적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로써 3분기까지 누적으로는 수출실적이 10조원을 넘으면서 전체 매출의 52.4%를 차지했다. 석유사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수출액은 직전 분기나 전년 동기보다 다소 하락했으나 휘발유, 등유, 경유 등 3대 경질유의 경우 수출액이 1조 382억원을 기록하는 등 분기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SK에너지, 中 경제중심 상하이에서 이사회 개최



SK에너지가 지난 11월21일 오후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었다.

이번 이사회에는 최태원 회장, 신현철 사장, 김준호 부사장 등 사내 이사 3명과 조순 이사, 한영석 이사 등 사외이사 6명 전원이 참석했다. SK에너지가 해외에서 이사회를 연 것은 지난 2004년 10월 중국본부 개소식과 함께 한 베이징 이사회, 2005년 싱가포르 이사회, 지난해 두바이 이사회 이후 네 번째다.

SK에너지 이사회사무국장 남상근 상무는 “중국 경제의 중심도시인 상하이에서 이사회를 개최함으로써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중국사업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고, 사업현장 방문을 통해 글로벌 전략을 현장에서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SK에너지, 우라늄 탐사 나선다



SK에너지가 원유, 가스, 석탄 광구 등에서 미래의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 받고 있는 우라늄 광구까지 확대되는 등 다양한 글로벌 자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에너지는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전력, 한화무연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캔알래스카(CanAlaska)사가 보유한 캐나다 크리 이스트(Cree East) 우라늄 탐사 프로젝트 지분의 12.5%(컨소시엄 전체 50%)를 인수해 우라늄 탐사 사업에 첫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SK에너지는 지난 10월 11일 63빌딩(58층 주피터 Room)에서 김정관 산업자원부 에너지지원개발 본부장, 피터 다슬러(Peter Dasler) 캔알래스카사 사장, SK에너지 한병진 석탄사업 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트너십 결성, 지분인

수, 공동 탐사 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투자협정을 체결했다. SK에너지를 포함한 한국 컨소시엄 4개사는 올해부터 4년간 탐사 비용 1,900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166억원)를 제공하고 캔알래스카 회사가 보유한 크리 이스트 탐사 프로젝트 지분의 50%를 취득할 계획이다.

인천항 화물차 운전자 위한 원스탑 서비스 개시

인천항 남항에 축구장 8개와 맞먹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소 시설이 완공되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SK에너지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컨공단')은 지난 10월2일 해양수산부 이은 차관,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 SK에너지 신현철 사장, 컨공단 정이기 이사장 등 관계자들과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 화물차 전용 복합휴게소" 건립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인천항 화물차 휴게소는 지난 2005년 12월에 준공된 광양항에 이어 두번째로, 향후 화물운전자의 복지 향상은 물론,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우 커플 50쌍 합동웨딩마치 행사 개최



"가을의 문턱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여느 신랑, 신부보다도 맛있고 아름다운 장애인 50쌍의 합동 결혼식이 가족 친지와 각계의 축하 속에 열렸다. SK에너지는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우 커플 50쌍과 가족 300명을 초청해 지난 10월6~7일 이틀 동안 서울 광장동 쉼라톤 워커히 호텔에서 '행복 허니문' 행사를 열었다.

SK에너지의 '행복 허니문' 행사는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우 커플들을 위한 합동결혼식으로, 드레스·메이크업·웨딩촬영 등 결혼식 사전 준비부터 결혼식 및 허니문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3번째를 맞은 뜻 깊은 행사다.

SK에너지, '마라톤 사회공헌 기록 경신'



SK에너지가 지난 2004년부터 사회공헌활동 기금 조성을 위해 시작한 '마라톤 사회공헌 기금'이 6억원을 넘어섰다고 지난 10월19일 밝혔다.

'마라톤 사회공헌 기금'은 신현철 사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마라톤에 참가해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조건으로 지인들이나 임직

원들에게 성금을 모금해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으로 SK에너지는 이렇게 모아진 성금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펀드(Matching Fund)로 조성한다.

SK에너지 창립 45주년 '새로운 도약' 다짐

SK에너지가 지난 10월13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회사 창립 45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창립기념식과 체육행사를 함께 열어 서울 본사, 울산 공장, 대덕기술원 등 주요 사업장에 소속된 임직원과 가족 3,000여 명이 참여해 축구, 족구, 피구 등 체육행사와 부서별 장기자랑 등의 행사를 즐기며 화합의 장을 여는 자리로 기획됐다. SK에너지 관계자는 "회사 창립 45주년을 기념하여 많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어울려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특히 올해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SK에너지가 신설회사로 탄생한 첫해라 더욱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GS칼텍스 허동수 회장, 인촌상 수상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이 지난 10월 11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제21회 인촌상을 수상했다. 일제강점기 경성방직과 고려대를 설립하고 동아일보를 창간한 민족 지도자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朱) 선생의 유지를 잇기 위해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이사장 현승중)와 동아일보사가 제정한 인촌상은 해마다 교육·산업기술·언론출판·공공봉사·문학·학술 등 6개 부문에서 한국 사회에 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되고 있다.

각계 인사와 인촌 선생의 후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서 허동수 회장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창의적인 기업활동이나 독창적인 기술개발 등으로 우리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되는 산업기술 부문상을 수상해 상패와 기념 메달, 상금 5000만 원을 수여 받았다.

이날 허동수 회장은 "GS칼텍스는 40여 년 전 민간으로는 처음으로 정유공장을 만든 뒤 하루 72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는 세계적인 회사가 됐다"며 "후손들을 위한 청정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해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허동수 회장, 2007 동북아석유포럼에서 강연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은 지난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중국 북경에서 열린 2007 동북아석유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의 첫날 CEO세션에서 허동수 회장은 '동북아 석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한중일 에너지 협업체' 구성을 제안하고 동북아 에너지업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2001년 베이징에서 출범한 이래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동북아

석유포럼'은 한중일 에너지업계의 최고경영진과 관련 연구진이 참여하는 포럼으로, 이번 포럼에는 회사 및 국내 에너지 업계와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석유포럼의 관계자 등 한국 측 참가자 40여 명을 비롯, 중국, 일본의 에너지 업계 전문가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 참석

허동수 회장은 지난 10월 30일 일본 도쿄(東京)의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제6차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위원장인 허동수 회장을 비롯한 일본 위원장인 미야우치 요시히코(宮内 義彦) 오릭스그룹 회장, 미타라이 후지오(御水洗 富士夫) 일본 경단련 회장, 와타리 후미야키(渡 文明) 신일본석유 회장, 수스펑(蘇士峰) 중국 대표단장, 쉬러장(徐樂江) 바오강그룹 회장, 쉬허이(徐和誦) 북경현대자동차 회장 등이 참가해 동북아의 지속성장과 공동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No.2 HOU 전 공정 상업가동 시작



GS칼텍스는 지난 10월 29일, No.2 HOU의 전 공정에 대한 본격적인 상업가동을 시작했다. 지난 8월 25일 VDU를 시작으로 10월 13일 HCR, 10월 27일 LOP 시운전에 착수하여 이번에 전 공정에 대한 상업가동에 돌입함에 따라 등유 및 경유를 비롯한 청정연료와 고품질의 윤활기유를 생산하게 됐다.

GS칼텍스는 지난 8월 31일 세계 최고의 기계적 준공에 이어, 타사 사례에 비해 월등히 단축된 기간 내에 Safe One Shot Start-up을 달성함으로써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성공적인 No.2 HOU 전 공정 상업가동 시작으로 GS칼텍스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따른 이윤 창출은 물론 급등하는 원유가 행진 및 갈수록 엄격해지는 품질 규제 속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GS 칼텍스 수소스테이션 준공

GS칼텍스는 지난 9월 13일, 서울 연세대에서 허동수 회장,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 정창영 연세대학교 총장, 이기섭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홍성안 수소연료전지사업단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스테이션 준공식을 가졌다.

수소스테이션이란 휘발유나 경유 대신 미래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수소(Hydrogen)를 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써,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를 앞둔 미래형 연료전지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게 된다. 특히 GS칼텍스의 수소스테이션은 국내 최초의 민간 수소스테이션으로, 수소경제 기반확립에 교두보가 될 납사(Naphtha)와 물을 고온에서 촉매 반응하여 수소를 직접 생산하고, 압력을 가해 수소를 저장한 뒤 수소를 연료전지 자동차에 공급하게 된다.

중국 청도 1, 2호 주유소 완공식 개최



허동수 회장은 지난 11월 2일 중국 산둥성 청도(靑島)에서 중국 1호, 2호 주유소 완공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회사 임직원 및 협력업체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경과보고와 함께 제막식 및 주유소 시설물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허동수 회장은 “선진화된 주유시설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중국 산둥성을 대표하는 최고의 주유소를 만들겠다.”며 “청도시의 동반자로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며 청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GS칼텍스(청도)능원유한공사는 금년 11월 중 1호 주유소 개업을 시작으로 청도에서 새로운 주유소 문화를 선보일 계획이다.

북한에 2만 1천 톤 규모 중유 공급

지난 10월 28일, GS칼텍스의 2만 1천 톤의 중유를 실은 유조선 뤼진탄(RUI JIN TAN)호가 여수에서 북한의 송림항 및 선봉항을 향해 출항했다.

이번 공급은 6자 회담을 통해 합의된 대북중유 지원의 일환으로 한국, 중국에 이어 미국 공급분 5만 톤 중의 일부다. 美 대외원조 기구인 유세이드(US AID)가 실시한 국제입찰에서 GS칼텍스가 수주한 물량이고 나머지 2만9천 톤의 중유는 전문 석유타레이딩 회사인 비톨(MTOL)사가 담당했다.

지난 1994년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북 중유공급을 진행하기도 했던 GS칼텍스는 앞으로도 북한에 중유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S-OIL, 제2Aromatic Complex 건설

S-OIL이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투자에 나선다.

S-OIL은 201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투자비 1조4천억원을 들여 온산공장(울산시 소재) 내에 연산 90만톤 규모의 파라자일렌(P-X, Para-Xylene)과 28만톤 규모의 벤젠(Benzene) 등을 생산하는 제2아로마틱 콤플렉스(No.2 Aromatic Complex)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월 16일 발표했다.

S-OIL 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제2 아로마틱 콤플렉스 건설 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본격적인 건설 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설하는 제2아로마틱 콤플렉스는 합성섬유의 기초원료인 P-X를 생산하는 제2자일렌센터(No.2 Xylene Center)와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를 개질하여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원료인 BTX(Benzene, Toluene, Xylene)를 생산하는 아로마이징 시설(Aromizing Unit) 등으로 구성된다. 이 시설들이 완공되면 S-OIL은 석유화학부문에서 생산능력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연산 160만톤 규모의 P-X 생산시설과 연산 58만톤 규모의 BTX 생산시설을 갖추게 되며, 2011년 이후 영업이익률이 약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S-OIL은 원료로 사용되는 나프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정제능력도 현재 하루 58만배럴에서 63만배럴로 증대할 계획이다. 현재 S-OIL은 연산 70만톤 규모의 P-X, 연산 30만톤 규모의 BTX 그리고 연산 20만톤 규모의 프로필렌(Propylene)을 생산할 수 있는 석유화학시설을 갖추고 있다.

재해복구(DR)센터 본격 가동



S-OIL은 주 전산센터 데이터 백업을 위해 경기도 용인 마북동에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10월 15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재해복구시스템은 본사 주 전산센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초당 2.5기가바이트의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전송, 저장한다. 주 전산센터가 재해를 입을 경우 3시간 이내에 재해 시점

의 데이터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정보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로써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가용성 강화는 물론 대외적으로 회사의 공신력을 한층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S-OIL, '2007 챔피언스클럽' 운영인 일본연수

'2007 챔피언스클럽' 운영인 부부 71명이 지난 10월 9~11일 일본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S-OIL의 '챔피언스클럽'에 선정된 계열주유소와 충전소 운영인들과 문화활동을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유소 탐방 위주의 지난해 행사와 달리 공연 관람, 온천욕, 골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출국 전날에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국내 워크숍을 갖고 외부 강사의 일본주유소 현황 설명, 부부 커뮤니케이션 특강에 이어 저녁에는 '난타' 공연을 관람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연수는 나고야에서 주유소 2곳을 방문, 셀프주유소 운영 노하우



와 서비스 향상 기법을 살펴보고, 온천욕과 골프, 친교 만찬을 즐기며 상생의 파트너십을 굳게 다졌다.

KLPGA 2007 왕중왕전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개최

S-OIL은 지난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주도 로드랜드 골프클럽에서 “MBC투어 로드랜드 2007 왕중왕전 S-OIL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여자프로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총 상금 3억(우승상금 6천만원)원 규모로 진행된 이번대회는 세계골프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스타들의 대결장이 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미 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린위의 패션모델 강수연을 비롯하여, 내년도 LPGA 풀시드를 획득한 이서재, 그리고 시즌 정규 투어 7승에 빛나는 신지애(19,하이마트), 3승을 차지한 안선주(하이마트 19) 등 TOP랭커 선수들과 아시안 투어중진 아시아 각국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 수준 높은 경기가 되었다. 최종라운드 결과 프로골프 2년차인 임지나(20)가 최종합계 6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S-OIL은 갤러리들을 위해 편안한 경기관람과 더불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 및 편의 시설을 제공하였다. 갤러리들을 위한 이벤트로 2라운드에는 로드랜드 골프클럽 연습그린에서 진행되는 칩샷, 3라운드에는 퍼팅대회가 진행되었으며 마지막날에는 갤러리 대상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였다.

S-OIL, 2년 연속 임금동결

S-OIL 노사는 지난 11월 5일 오전 울산공장에서 2007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올해 임금을 작년어 이어 동결하기로 합

의했다.

S-OIL 관계자는 “S-OIL은 앞선 고도화시설 투자와 효율적인 마케팅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노동조합이 임금동결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S-OIL 노사양측은 임금을 동결함으로써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고 고유가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나눈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노동조합 신진규 위원장은 “작년에는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동결하였고 금년에도 고유가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나누겠다는 취지에서 회사의 임금동결 제의를 노조가 전격 받아 들었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 가족과 함께 생활문화체험



전라본부 5명과 광주지사 3명, 주유소컨설팅팀 파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S-OIL 전라지역 사회봉사단은 지난 10월 27일,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광주지역 결혼이민자 가족들과 생활문화체험에 나선 것으로 이 행사는 필리핀과 중국, 일본 등에서 태어나 한국 땅에 정착한 결혼이민자 13명과 자녀 28명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광주 결혼이민자센터 직원 2명과 S-OIL 봉사단 및 가족 18명이 참여해 신나는 가을소풍을 다녀왔다.

광주에서 모인 결혼이민자 가족과 S-OIL 사회봉사단은 역사의 고장 나주로 이동해 천연염색문화관을 둘러본 후 영산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천연염색문화의 배경과 염색과정을 견학한 후 뒤이어 천연염색 체험시간을 가졌다.

현대오일뱅크, 가족사랑과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현대오일뱅크 가족사랑 가을음악회'가 수도권 거주 임직원과 가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서울 정동극장에서 진행됐다.

지난 2005년부터 임직원 가족사랑의 일환으로 시행해 온 현대오일뱅크 가을음악회는 올해는 서울조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초청돼 루슬란과 루드밀라 중 서곡,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에필로그 등 영화 음악과 뮤지컬음악 모음곡 연주로 가을 저녁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소프라노 유진교, 베이스 바리톤 김형수, 뮤지컬 가수 김아선 씨가 출연해 오페라 및 국내 가곡과 뮤지컬 음악을 열창했다.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사장은 이번 음악회에 특별 출연해 이태리 가곡 'Musica proibita(금지된 노래)'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Tonight' 등 두 곡을 불러 참석한 오일뱅크 가족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서는 결혼기념일이 음악회 전후에 있었던 임직원 부부를 축하하는 깜짝 이벤트도 펼쳐졌다.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사장은 이번 음악회에 특별 출연해 이태리 가곡 'Musica proibita(금지된 노래)'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Tonight' 등 두 곡을 불러 참석한 오일뱅크 가족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서는 결혼기념일이 음악회 전후에 있었던 임직원 부부를 축하하는 깜짝 이벤트도 펼쳐졌다.

한국 서비스품질지수(KS-SQI) 주유소 부문 1위



현대오일뱅크가 한국표준협회,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2007 한국 서비스 품질지수' 평가에서 총 67.8점을 얻어 주유소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현대오일뱅크의 이번 1위 수상은 고객사랑을 지향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고객이 원하는 욕구를 시장에서 신속하게 피드백해 마케팅 정책에 반영하려는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국 오일뱅크 주유소의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해온 "웰컴 오일뱅크" 캠페인과 최근 "서비스뱅크" 캠페인, 경영컨설팅, Total Service 팀 운영 등 여러 프로그램과 조직을 운영, 고객감동을 마케팅 전략의 핵심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한 결과가 이번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합쌀가득 페스티벌, 매일 1만5천명 합쌀 증정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2300여 개에 이르는 오일뱅크 주유소에서 보너스 카드이

용 주유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1만 5천명씩 추첨을 통해 행사 기간 중 모두 465,000명에게 1kg 상당의 신도불이 합쌀을 즉석에서 무료로 증정하는 '합쌀가득 페스티벌'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표준협회 주관 서비스 품질지수(KS-SQI) 1위 기념하여 실시되어, 행사 기간 동안 모두 310명의 고객들을 전산 추첨해 20kg합쌀을 증정하는 온라인 경품행사도 함께 펼쳐졌다.

자영주유소 사장단 금강산 간담회 개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65곳의 계열 주유소 사장단 총 330여명을 초청하는 '금강산 합숙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사장은 이번 금강산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사업파트너인 일선 주유소 사장들과 주유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 회의, 중장기 비전(Vision) 공유, 우수 주유소 포상 및 성공사례 전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자영주유소 사장단은 지난 98년 국내 최초로 북한에 진출한 주유소 1호점인 금강산 연유공급소를 견학하며, 북한 내 주유소 운영에 대한 이해를 함께하기도 했다.

제2회 파란세상 파란마음 글·그림 공모전 수상작 발표



현대오일뱅크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사랑의 마음을 심어 주고 숨겨진 글과 그림 숨씨를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제2회 파란마음 파란세상 글쓰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10월 한달 간 실시하고, 글 부문에서는 충남 서산시 명지초등학교 1학년 구본원 군이 응모한 반장 이준마를, 그림 부문에서는 충북 충주시 중앙초등학교 1학년 조유진 양의 '가벼운 지구(그림)'를 대상작으로 선정했다.

올해 두 번째인 공모전에는 전국의 초등학교 어린이가 작품 750편이

접수됐으며, 아동문학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을 포함해 파란마음상, 파란세상상, 파란하늘상 각 5편씩 모두 32편을 선정했다.

대산본사 임직원 신규주택 완공



현대오일뱅크 대산본사의 신규 사원주택이 14개월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1일, 서영태 사장과 김영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가족, 건설 공사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사산시 대산을 대죽리 980번지에 있는 기존의 사원아파트 바로 옆에 자리잡은 신규 사원주택은 모두 104 가구로 현대오일뱅크 대산본사 근무 임직원과 가족들의 주거 환경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 무재해 200만인시 달성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10월 12일 기준으로 공장 무재해 200만인시를 달성했다.

이는 위험요소가 항상 상존하는 고온고압설비를 24시간 풀 가동하는 장치산업 특성상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임직원들이 안전환경 제일의 경영방침을 준수하며 모든 역량을 합심해 이룬 귀중한 결과다. 이번 무재해 200만인시 달성은 지난 2006년 8월 20일 0시부터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임직원이 하루 이상의 작업 손실이 나는 화재, 사고, 화재, 폭발 등과 같은 직접 설비 손상으로 5천만원 이상의 재해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총 797명(4조 3교대) 일일 약 350명 투입 기준의 임직원이 장장 418일 동안 이뤄낸 성과다.

인천사단 '사랑의 연탄나눔' 및 '사랑의 김장나누기' 시행



SK인천정유 자원봉사단인 '인천사단'은 지난 11월 27일 최상훈 대표이사를 비롯한 봉사단원 47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과 공동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28일에는 YMCA와 SK그룹이 함께하는 '2007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여하였다.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은 SK인천정유 자원봉사단 인천사단이 조직된 후 두번째 갖는 연탄나눔 활동으로 인천공장이 위치한 인천시 서구 관내의 지적 장애인 복지단체(인정 재활원) 1곳과 저소득층 가정 3곳을 대상으로 총 1,6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고,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을 통해 19가구와 3단체에 9,100장을 전달하였다.

클린주유소 인증 1·2호점 탄생



SK인천정유는 지난 10월23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직영 4호점 동탄신도시주유소에 대해 클린주유소로 환경부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지

난 9월 봉수대로주유소(인천 서구 소재)에 이어 두번째 클린주유소를 확보하게 됐다.

클린주유소란 이중벽탱크와 이중배관 등 주유소에서 유출될 수 있는 유류제품에 의한 토양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시설들이 설치된 주유소로 유류의 유출방지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시 즉각 정화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청정 주유소이다.

SK인천정유는 지속적인 클린주유소 설치 확대를 통해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하고, 누출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주유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깨끗한 주유소로서의 이미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2007년 대리점 최고경영자 해외세미나 개최

SK인천정유는 지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동안 일본 오카와에서 2007년 대리점 최고경영자 해외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SK인천정유와 함께해 온 대리점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동일석유 김배근 사장을 비롯한 총 4개 대리점 최고경영자가 참석하였다

행사 첫날 열린 만찬 환영사에서 최상훈대표는 "SK인천정유는 지난해 출범이 후 양호한 영업실적의 실현, FCC고도화 시설투자, #1 CDU의 성공적 재가동 등 부단히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SK에너지(주)와 합병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기축 사업인 석유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을 통해 '아/태 지역의 에너지/화학메이저'로 비상해 나갈 기틀을 확보하여 기업가치를 제고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한 뒤, "지난해 우리가 함께 나아갈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다면, 이번 해외 세미나에서는 SK인천정유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행복을 그려나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

2007년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 발표

SK인천정유는 지난 11월 23일 인천광역시와 에너지 관리공단 인천지사가 주관하여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07년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발표회 및 기술세미나'에서 에너지절약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SK인천정유는 가열로 열회수율 극대화 실천 사례와 등경유 탈황공정 Hot Separator 및 Vacuum Dryer 신설에 따른 에너지 절감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에너지 진단사업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했다.

최근 고유가 행진 속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인천시 관내 위치한 100여명의 사업장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에너지절약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SK와이번스 우승기념 'OK캐쉬백 더블포인트 페스티벌' 시행



SK인천정유는 지난 11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인천지역 주유소/충전소를 대상으로 SK와이번스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 "OK캐쉬백 더블포인트 페스티벌"을 시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올해 6월중에 실시되어 유통고객과 최종고객의 좋은 반응을 얻었던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가자 문학경기장으로! 프로모션과 연계된 행사로 인천지역의 야구 열풍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인천지역 고객의 SK인천정유 Brand Loyalty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다.

SK인천정유는 지역시민과의 유대강화 및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천지역에서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7년도 민·관합동 해상방재훈련

SK인천정유는 지난 10월 10일 인천지방해양경찰청과 한국해양 오염방재조합 등과 공동으로 인천공장 부두 전면해상에서 2007년 민관합동 방재훈련을 실시하였다.



주요 훈련 내용은 대형유조선 충돌사고로 방커C유 약 2,000㎩가 해상에 유출된 사고를 가상하여, 인명구조훈련, 유출유 확산방지 및 인근해역 보호를 위한 오일펜스 전장, 방재선의 유출유 회수 시스템 운용 및 유처리제 살포훈련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조 헬기, 구급차 및 방재선 20여척 등의 장비와 약 170여명의 인력이 참가한 대규모 훈련으로 실시되었다. SK인천정유는 이번 훈련에 방재정 2척과 초동방제 요원 12명이 참가하여, 그 동안 훈련으로 숙련된 방재조치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2007년도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실시



SK인천정유는 지난 10월 19일 부산소방본부 주관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지방 경찰청, 육군 제53사단 등과 공동으로 부산저유소에서 2007년 민관군 합동 재난 대비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소방본부 231명 외 총 29개 기관 약 420명이 참가한 대단위 훈련으로, 경찰청 헬기, 구급차, 제독차, 긴급 복구차 등 총 1000점의 장비가 투입되었으며,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이명규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각계 기관 단체 내빈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라크 육상 탐사광구 확보



석유공사, 쿠르드지역...매장량 5억배럴 추정

한국석유공사와 국내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이라크 쿠르드지역에서 5억 배럴 가량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탐사 광구를 확보했다.

석유공사는 한국 컨소시엄이 지난 11월 10일(현지시간) 이라크 아르빌에서 이라크 북동부 쿠르드지역의 바지안 육상 탐사광구에 대해 쿠르드 자치정부와 생산물분배계약(PSC)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산물분배계약 체결로 한국컨소시엄은 이라크 쿠르드 지역 내 유망광구를 확보함으로써, 석유매장량 세계 2위인 이라크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자그로스 분지에 위치한 이 광구는 자이툰 부대의 주둔지인 아르빌에서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석유공사(지분 38%) 외에 SK에너지(19%), 대성산업, 삼천리, 범아자원개발(각 9.5%), GS홀딩스, 마주코통상(각 4.75%), 유아이에너지(5%)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컨소시엄은 연말까지 참여사 간에 바지안 광구 공동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현지 사무소를 열어 탐사 활동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하는 등 오는 2010년까지 물리탐사 및 탐사시추를 벌일 예정이다.

LG상사, 사하공화국 자원개발 나서

LG상사는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러시아 사하공화국 쉬뜨로프 대통령과 함께 '2020년 사하공화국 종합 산업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50조6000억원 규모의 남야쿠치야 종합개발 프로젝트 추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사하공화국이 진행하는 자원과 인프라 개발 사업으로 LG상사는 남야쿠치야 개발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한국측 창구로 활동하면서 다른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남야쿠치야 종합개발 프로젝트'는 사하공화국이 국가차원에서 진행하는 자원 및 인프라 투자사업으로 '2020년까지 사하공화국의 생산력, 교통 및 에너지 종합 발전 계획' 실현을 목표로 추진되며, 총 투자금액이 1조4000억 루블(약 USD 55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상사는 2억달러 규모의 석탄 광산 투자·개발 사업인 '이나 클린스카야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골든오일, 아르헨 LDP 탐사광구 본격 개발

골든오일은 지난 11월 1일 아르헨티나 LDP 탐사광구 개발 사업 계획신고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광구 탐사 및 시추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골든오일은 "LDP광구는 아르헨티나 중서부 지역내 네오꾸엔(Neoquen)분지에 위치한 광구"라며 "지난해 11월 국제 석유탐사광구 입찰을 통해 아르헨티나 리오네그로 주정부로부터 광구 권을 낙찰받고, 올 3월 주정부와 공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캐나다 석유회사 팬아메리칸(Pan American)과 크라운 포인트(Crown Point)로부터 LDP 광구 1차 탐사비용의 80%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광구권의 50%를 양도하는 지분양도 및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골든오일 관계자는 "LDP광구의 운영권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1단계 의무 탐사비용의 20%를 분담하고, 향후 생산으로 인한 수익의 50%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